

“기쁘다!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25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
26일 성탄주일 칸타타,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12월 25일(토)은 성탄절, 26일(일)은 성탄 주일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12월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가 막 오른다. 예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도 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오전 9시, 수원과 대전온누리교회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남양주온누리교회 오전 11시, 인천온누리교회 오전 9시, 평택온누리교회 오전 11시, 강동온누리교회 오전 11시 30분, 양지온누리교회 오전 10시 본당에서 열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사회 오미희 권사(배우), 미스터 브라스, 소프라노 김영미, 방송인 김영우(스윗소로우), 남성합창단, 더블레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온누리교회는 사회 주영훈(가수), 윤형주 장로(가수), 크룩스, 남성합창단, 소프라노 신델라, 나인티스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12월 26일 성탄주일예배에서는 성탄 칸타타를 선보인다. 서빙고는 주찬양 찬양사역팀이 ‘성탄의 축복’을 주제로, 양재는 주임재 찬양사역팀이 ‘할렐루야 찬양의 날’을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금)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9시,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신년예배는 1월 1일 (토) 토요주일예배로 대체된다(표 참조).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

* 신년예배는 토요주일예배로 대체됩니다.

캠퍼스	12월 25일(토) 크리스마스 콘서트(성탄축하예배)	12월 31일(금) 송구영신예배
서빙고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 3부 오후 1시 / 4부 오후 3시	1부 오후 7시 / 2부 오후 9시 / 3부 오후 11시
양재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 3부 오후 2시	1부 오후 7시 / 2부 오후 9시 / 3부 오후 11시
부천	오전 9시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수원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대전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남양주	오전 11시	오후 11시
인천	오전 9시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평택	오전 11시	오후 11시
강동	오전 11시 30분	오후 11시
양지	오전 10시(축하행사 오전 11시)	오후 11시

정부의 종교시설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온누리교회의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토요주일예배와 대학 청년, 차세대 예배는 접종 유무 구분없이 30% 인원이 예약 후 참석 가능합니다.

2. 일요주일예배의 경우 예약 후 입장하는 것은 동일하나 본당에 입장 가능한 분들은 접종완료자 50%(정부 지침은 70%가능하나 축소하여)입니다. 접종완료자들은 본당 입장 시 접종확인증명을 안내위원에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접종미완료자들은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접종미완료 성도들 중 본당에서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주일예배로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방역 상황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참석이라는 양립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시작됐다. 지난 12월 13일(월) 시작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내년 1월 21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나 영상 예배(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오전 5시 30분부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유튜브 채널은 5시 30분부터, CGNTV는 6시부터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열기가 시작부터 뜨겁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기준으로 하루 평균 1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약 6천여 명이 실시간 시청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과 중보기도에 힘쓰도록 독려한다. 교회에서 매일 순장들에게 새벽기도회 메시지 링크와 중보기도제목 등을 발송하면, 순장들이 순 단체채팅방에 공지한다. 순원들은 그날의 새벽기도회 은혜를 ‘한 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나누고, 중보기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된다.

서승욱 권사(고양은평공동체)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메시지와 중보기도를 잘 정리해서 기도책자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4면).

/ 정현주 기자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겠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두 팔 들고 기도하고 있다.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 12월 13일(월)부터 40일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성도들의 기대와 포부, 은혜가 벌써부터 풍성하다.

노치형 목사(서빙고 목회행정)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장로(동대문중앙광동체)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과 동시에 성경일독을 하고 있

다. “모두가 분주하게 보내는 시간이 연말연시인 것 같습니다. 자칫 분주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과 함께 성경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애국(愛國)이다.

“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 유독 애국심이 강해집니다. 예전부터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의 기도가 저에게도 심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가 흉흉하고, 국내에도 어지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작

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용 순장(양천공동체)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첫사랑의 설렘과 같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설렘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 첫사랑이 설렘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모이기 힘들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도제목과 은혜

〈경기A공동체 C1순〉

“오늘 하루 천국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상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 이윤석 순장

“아멘!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 황보선 권사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과 빛을 발하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내어주는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 구덕례 집사

“나를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서광렬 집사

〈이촌공동체 사랑2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김정숙 권사

“도덕적인 의가 아닌 성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김봉주 집사

“완전히 선택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윤희 집사

“회개와 용서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사랑

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소서.”

/ 김찬중 집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은혜의 잣대를 이웃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 장정희 권사

〈부천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 C7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강준호 순장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정수용 집사

“세상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과 사랑의 언행으로 형제자매에게 위로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에 따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 문정식 집사

“세상의 설탕이 되지 말고 소금이 되길 기도합니다.”

/ 최영숙 집사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크리스천과 산상수훈

〈현실과 믿음 사이〉, 〈예수님의 진심〉,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7장에 적힌 말씀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전한 설교다. ‘성서 중의 성서’라 불릴 만큼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산상수훈은 크리스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산상수훈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산상수훈을 더 자세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둔 책들이 있다. 〈현실과 믿음 사이〉(헬무트 틸리케 저, 두란노), 〈예수님의 진심〉(스카이 제서니저, 두란노),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한기채 저, 토기장이)이다.

〈현실과 믿음 사이〉는 본회퍼와 함께 나치에 반대해 기독교의 불을 지킨 신학자 헬무

트 틸리케가 썼다. 하나님 없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복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도록 돕는다.

〈예수님의 진심〉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현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분주한 삶으로 예수님의 진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만든다.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가 본문의 이해를 돕는다.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도록 돕는 책이다. 산상수훈을 쉽게 풀어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마음과 삶에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2월 13일 월요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1~12

이재훈 목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단어가 ‘복되도다’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롱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열렸기 때문이고,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덟가지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하면 복됩니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됩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가 복됩니다.

둘째, 슬퍼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슬픔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애통해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슬픔이 있다면 복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넷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됩니다. 음식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보다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이 복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과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사람이 복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한 그리스도 의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

선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일곱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평화를 이룹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기까지 회개와 통회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열린 하늘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 12월 14일 화요일

세상의 소금과 빛

마태복음 5:13~16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복되도다”라는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전혀 복되지 않은 형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덟 번이나 복되다고 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라는 지칭은 팔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

리는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선포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은 팔복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이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금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뿌려진 소금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극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발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뿌려져 역할을 다한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촉매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단화 되어서 힘을 가진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은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촉매제의 삶이 온누리교회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비전이 빛으로 나아갑니다. 소금이 녹아 빛을 발합니다. 소금이 되면 빛이 됩니다. 더러움을 정결하게, 부패를 정직하게, 다름을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소금의 녹음이 바로 빛을 발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든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째,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구를 위성에서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인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한 명을 감추는 것보다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잔대 위에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등잔대에 놓인 등불을 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처럼 녹아져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 녹고 빛은 태워집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5일 수요일

작은 자와 큰 자

마태복음 5:17~20

이재훈 목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육체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 만날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서 떨어지나와 불완전한 상

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새로운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설하는 책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책으로 가르치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함당하도록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롬 8:3~4).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

는 이 말씀 가운데 요약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 13:8~10).

십계명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순종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촉매제가 된 것처럼, 그 사랑이 소금처럼 녹고, 빛처럼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의 촉매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윤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천국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6일 목요일

분노에서 화해로

마태복음 5:21~26

이재훈 목사

오늘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한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교양, 생각, 지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충격적일 만큼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개혁 이전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모든 교회의 예배는 라틴어로 인도했기에 무슨 말로 진

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 대신 대중 언어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교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전달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 됨을 감추기 위해 희석하고, 축소하고, 어느 정도 지킨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에 대해 말

씀하시면서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21절에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지방재판소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6번째 계명에 덧붙인 것입니다. 율법을 재판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 세상의 질서 차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22절은 분노, 저주, 멸시라는 단어만 있고 살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살인에 이르는 이면의 죄악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라는 죄악 행위 이면에 죄악의 타락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이러한 감정을 가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 저주,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행위로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행위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

니다. 행위가 없더라도 동기가 있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동기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죄가 스며듭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원망 자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함축된 의미에는 원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기에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와 무의식의 세계까지 화해를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2월 17일 금요일

마음의 간음

마태복음 5:27~30

이재훈 목사

천국에는 우리의 육신, 옛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새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이지만 타락한 육신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타락한 옛사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지?’라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법과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의 법은 마음의 상태까지 세심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불법이나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윤리, 천국의 삶의 방식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위,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성적인 타락을 경고합니다. ‘간음’이라는 성적 타락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을 들춰내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만 안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28절). 육체의 간음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는 마음의 간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간음에 이르게 하는 이면을 추적해보면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시각적 자극에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눈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했던 사람이 구약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잘 통제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가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정결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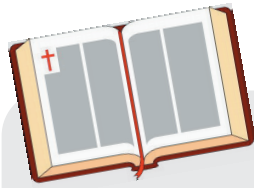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29~30절).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면 유혹이 끊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을 끊어내는 결심, 각오, 믿음으로 눈과 생각, 정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이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상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순결이 문화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에 타락한 문화가 담겨있다면 안 봐도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좋지 않은 문화에 휩쓸리는 눈과 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지난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만일 거기서 그쳤다면 광야에서의 방황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이 십자가의 모형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형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참된 자유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보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진리를 분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도외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가 파편화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16~18절).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영적 삶입니다. 영적 삶이란 끊임없는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전혀 없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영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큼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끊임없이 갈등한다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죄 된 본성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필요와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그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금욕주의는 몸의 행실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영역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도 또 다른 육체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막지 않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음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몸의 행실은 죽지 않습니다. 더 살아날 뿐입니다. 중세 시대 추악한 범죄들은 수도원 담벼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몸을 단절시키고,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육신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규율이나 법칙을 지킴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율법주의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죄악 된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까? 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세 단계 ‘죄 죽이기’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롬 8:13).

성령을 받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실패합니다. 혼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실패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했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 없이 죄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간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음을 계속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16절).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의 선택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지속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걷습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조금씩 걷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영적 생활을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과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19~21절).

옛 자이는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영역의 죄악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원수, 다툼, 시기, 분노, 분열, 분파, 질투 등은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사회적 죄악들입니다. 방탕한 사회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등 육체적인 일들을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면 전쟁터에서 미주한 군대 같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여러 개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거할 게 참 많은데 지면이 짧아서 이 정도로 하자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에 관한 것은 즉각적입니다. 순간적이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내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억제하고, 참고 또 참아서 끝납니다. <14면에 계속>

사역, 놀면 뭐하니?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비전트립 및 송년 아웃리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있다.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향한 섬김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역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온라인(비대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역팀이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하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활발하게 미자립 농어촌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살피고 섬기고 있다. 가뜰이나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곱지 않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더 큰 곤란에 빠진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12월 9일~12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올해 마지막으로 비전트립 및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진은 남해 서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12월 9일(목)~12일(주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다. ‘비전트립 및 송년 아웃리치’가 바로 그것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금산 창평교회, 산청 모례교회, 청현교회를 둘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고(비전트립), 남해 서면교회 예배당과 사택 대규모 보수공사(아웃리치)를 했다.

남해 서면교회는 생긴 지 70여 년(1953년 3월 1일 창립)이나 됐다. 그만큼 예배당과 사택이 낡았다. 설상가상 전(前) 담임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관리 및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뼈대와 지붕 빼고 다 뜯어고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다. 서면교회 대규모 보수공사에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영근 장로, 박진호 팀장, 손현석 총무, 기세중 회계, 정희평 집사, 김옥자 권사, 송경옥 권사), 수원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김상진 집사, 한상봉 집사, 이희상 집사, 정성숙 권사, 김진숙 권사), 주상조 장로(진 새골온누리교회), 윤철현 집사(아가페교회)가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봉사 활동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의 2021년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의 2021년은 누구보다 바빴다. 물품 지원, 교회 보수공사(아웃리치), 교회 탐방(비전트립), 사바트 프로젝트, 엔젤트리 등 매월 농어촌교회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했다. 비전트립 및 아웃리치 지역도 광활하다. 1월 전라북도(삼계교회, 주님의교회, 왕촌교회), 경기도(유전교회), 2월 전라남도(진도 예수촌교회, 송광교회, 주안교회, 해남 목민교회), 경상남도(송산교회, 소광교회, 평지교회, 탐리교회, 규포교회), 3월 전라남도 구례 섬전강교회(수원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방문), 4월 경상남도(함천 광월교회, 임불교회), 충청남도(예산 산 용리제일교회), 5월 전라북도(완주 예다교회, 평지교회), 경상남도(진주 초원교회, 통영 새성교회, 연화도교회), 6월 충청남도(예산 대아리교회), 경상남도(함양 광월교회), 7월 경상남도(통영 연화도교회, 평지교회), 전라북도(김제 서문, 월승, 원평중앙교회), 충청남도(서천 금포, 활동교회), 8월 전라북도(부안 청림교회, 고창 선동중앙교회, 덕천제일교회), 9월 경상남도(함양 해평교회), 전라북도(김제 유강교회, 정읍 상진교회), 10월 충청북도(보은 북암교회), 경상남도(함양 광월교회), 전라남도(구례

마산동부교회), 11월 경상남도(남해 새소망교회), 전라북도(원평 중앙교회), 12월 충청남도(금산 창평교회), 경상남도(산청 모례, 청현, 남해 서면교회)를 찾았다. 한 교회라도 더 도와주려고 부단히 애썼다.

2021년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낸 농어촌선교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감사를 고백했다.

이영근 장로(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담당)는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농어촌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 달란트 있는 귀한 동역자들의 섬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김옥자 권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는 “농어촌교회들을 직접 가서 살펴보니 않으면 그 교회가 처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면서 “내년에도 힘이 닿는 대로 농어촌교회들을 살피고 중보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진호 집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장)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교회를 보수했다”면서 “올해도 서빙고 농어촌사역팀의 사역에 은혜가 풍성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점순 권사(남해 서면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 같다”면서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서면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남해 서면교회 이선희 목사의 사명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교회 및 사택 보수공사를 한 남해 서면교회는 이선희 목사(59세)가 섬기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주일) 부임했다. 이선희 목사는 서면교회에 처음 온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가 막힌다.

“남편과 같이 교회를 보러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 건물이 폐허 수준이더라고요.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배당이 처참했습니다. 벽은 짝짝 갈라져서 틈이 크게 벌어졌는데 보수한 흔적은 없고,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없고... 남편이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겠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교회를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쩌다가 폐허가 되었을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때 주일학교 아이들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부흥했던 교회였다. 그 교회가 폐허처럼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폐허 같은 교회 모습에 도저히 사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계속 서면교회가 아른거려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서면교회가 생각나고... 결국 남편에게 ‘내가 서면교회에 안 가면 안 되겠다. 그 교회가 생각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겠노 가아지’ 하더라고요.”

큰맘 먹고 결심했는데 이선희 목사가 놓친 게 있었다. 교회보다 더 참담한 사택을 보지 못했다.

“처음 교회를 보러 왔을 때 교회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사택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함께 와서 사택을 둘러 보는데 그분이 ‘나 같으면 안 오겠어요’라면서 우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웃음).”

그래도 서면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마음을 추슬렀다.

“두 달 동안 잠을 자다가 새벽 1~2시 사이에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썼습니다. 모두 디모데서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이 떠오를 때도 있어서 찾아보면 디모데서 말씀을 주제로 만든 찬송가였습니다.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교회를 맡기면서 격려와 권면, 가르침을 준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서면교회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폐허 같은 교회와 사택이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의 수고로 탈바꿈했다. 이선희 목사가 울먹이며 온누리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와 사택을 보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다 뿌듯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면교회에 사랑의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나무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을 어르신들께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섬기겠습니다.”

여성 선교사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

혼란 속에도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2000선교본부가 여성 선교사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를 엮어냈다. 여성 선교사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에는 여성 선교사 11명의 가슴 따뜻해지는 신앙과 고백이 가득 담겨있다.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따끈따끈한 여성 선교사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본지에서는 선교지에서 새 생명을 얻은 프영 선교사(라오스)의 이야기를 발췌했다.

/ 편집자 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기쁨을 맛보고 있는 프영 선교사 가족들.

2019년 8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오스 사안나켓 지역과 접경해 있는 태국 묵다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열여덟 시간의 긴 이동 끝에 점점 가로등이 없어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달려 늦은 밤중에 선임 선교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버린 자녀 하엘이를 방에 눕히고 마주한 그날의 기억이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방 안에 가득한 곰팡내, 우기의 눅눅함, 우리를 환영해주는 듯한 수많은 모기와 온갖 종류의 벌레, 지금은 친숙해졌지만 당시에는 놀랐던 도마뱀과 함께 저희 가족의 선교지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곳은 대중교통이 없고, 뚝뚝이도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살배기 자녀와 함께 이사할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갖춰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딸 하엘이가 폐렴을 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현지인의 도움으로 현지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만났습니다.

2020년 3월, 라오스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모든 육로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4월부터 예정되었던 하엘이의 유치원 등원도 연달아 미뤄져 온 가족이 온종일 득테우 건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엘이는 온종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집안일을 할 때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기쁨보다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곳에는 현지어

를 연수할 학교나 기관이 없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독학해야 합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현지어 공부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조바심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며,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온 가족, 특히 하엘이의 안정적인 정서와 적응을 위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짐을 느꼈고, 하엘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현지인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더 건강하고 밝게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서도 일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새 생명 '조엘'

2020년 말,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보다 이른 7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텐데 이곳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잘 회복되고 있기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다시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둘째였기에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지 모릅니다.

그 기쁨도 잠시, 폭폭 찌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입덧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병원검

진을 하러 가면 몇 시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인데다, 기다려서 진료를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입덧을 참아가며 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진료를 못 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못 오세요”라는 간호사의 한 마디에 그 많던 임신부들이 군소리 하나 없이 해산하는 광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이곳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전국적인 병상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지역 감염이 속출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폐쇄되었고, 나머지 한 곳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현지 교회 성도의 가족이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출산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비자 연장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외국인 비자 연장을 해줬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비자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발표로 많은 선교사가 일시 귀국하거나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 선교단체에 속한 미국인 선교사 소개로 저희 부부가 국제학교 파트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비자를 얻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역과 병행하기 어렵고, 학교의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비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COVID 비자’라는 것이 새로 생겨 60일마다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남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문을 닫지 않은 나머지 한 곳의 병원에서 지난 8월 말 둘째 조엘이를 출산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진통이 오면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서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출산일 자정부터 진통이 시작됐지만, 오전까지 집에서 진통하고 현지 교회에 하엘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음성 결과를 받은 이후 입원수술을 밟았습니다. 의료진이 진행이 더디면

제왕절개를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수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옆에서 지지해주는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건강하게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축복 된 곳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교지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거주할 지역을 정하고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임을 깨닫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저희 가정을 부르신 곳에서 친히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걸음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 프영 선교사(라오스)

별을 따라 걷다

2021 여성 선교사 간증집

온누리신문

〈별을 따라 걷다〉
* 간증집 다운 QR코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족 중에 저 혼자만 교회를 다닙니다. 언니와 형부는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데 부모님은 싫어하십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못마땅해하시고, 새벽기도와 아웃리치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니까 더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지내보려고 참아보지만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교회 갈 때마다 눈치 주시고 싫어하시니까 주일이 괴롭습니다. 부모님과 잘 지내면서 신앙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민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귀하게 믿음을 지켜 온 자매님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매님의 기도 응답하시고, 자매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집안에 구원의 통로

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도 때가 되면 자매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매님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매님은 가정을 위한 구원이 시작이고, 통로인 귀한 사람이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둘째,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바란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

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보다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삶의 변화이다. 부모님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듯이, 부모님도 그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다.

셋째,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보이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흥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갈라졌고, 여리고 성은 일

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비로소 무너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대화에 반드시 ‘쉽표’가 필요하다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이 단칼에 잘리는 경험을 하면 누구나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된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의 대화에서도 단칼에 자신의 말이 잘리는 경험을 종종 한다. 생각과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부인하거나 거부당할 때 일반적으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강도가 더 할 수 있다.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이 단절당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배우자와 나눌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아내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서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단칼에 거부하는 패턴을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아내에게 “이번에 이분에게 이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다. 아내는 “그분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말을 덧붙였다. 좋은 생각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단호한 거부 의 대답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배우자와 대화에서 쉽표 없이 단번에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무시와 거부감 등이다. 단순히 ‘나의 의견이 거부됐구나’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 인격이 무시당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상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

리의 마음은 상황과 사건에 감정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다. 그 감정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복잡한 정서적 흐름 과정을 통해서 다소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물론 상대의 의견에 충분히 반대를 표할 수 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건강하다. 의견 반대에도 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부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흐름에서는 배우자가 반대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사람마다 순간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만일 반대하더라도 쉽표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생각하는 시간, 적어도 배우자의 말을 잠시라도 자신 안에 두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거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부당하는 느낌이 상당히 줄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숨에 거부당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는 반드시 ‘쉽표’가 필요하다. 상대의 의견과 말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자리에 잠시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의 말과 의견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상대의 의견을 잠시 두는 여유를 갖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 “말도 안 돼”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부감 등의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거부감과 연결된 감정과 생각은 ‘수용되지 못함’, ‘존중받지 못함’ 등이다. 단순히 대화 중에 거절하는 사건이 아니다. 거절을 통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거절감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존감에 손상을 받게 된다. 부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요소는 경청과 공감 등이다.

때때로 정말 수용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말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동의할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거나 나쁜 결과가 너무 선명한 제안은 반대하게 된다. 반대 상황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관계 안에 남는 찌꺼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말과 의견에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먼저 ‘쉽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는 상대의 눈빛과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의중을 짐

작할 수 있다. 반대를 말해야 한다면 ‘쉽표’, ‘조금의 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 상대의 의견과 말이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자리’에 머물게 한 것을 보이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갈등 없이 이견을 수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받게 된다. 마음자리에 배우자의 말을 잠시 담아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라고 공감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면 부부 대화와 부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적용: 배우자의 말을 단칼에 거부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세요.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배우자와 나눠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네”라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를 연습해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현실과 믿음 사이〉

헬무트 티리케 저 | 두란노 | 15,000원

당연했던 현실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지 2년이 되었다. 12월이 되면서 아름다운 트리들이 곳곳마다 세워졌지만, 예전 만큼 트리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지 않는다. 그나마 길가를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는 기대와 기쁨 대신 조심스러움이 느껴진다. 주일 사역을 마친 늦은 밤, 마치 지금처럼 아니 어쩌면 지금보

다 더한 현실 속에서 작은 촛불처럼 그러나 그 어떤 빛보다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신학자가 생각났다. 〈현실과 믿음 사이〉를 지은 ‘헬무트 티리케’다. 저자의 〈현실과 믿음 사이〉를 처음 구매해서 읽었던 2015년 겨울은 온누리교회에서 첫 성인사역을 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때였다. 성탄예배와 전도집회를 앞두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산상수훈과 관련된 이 책이 내 마음에 깊고 뜨거운 영적 울림을 주었다.

저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이 꼭 행복하고 밝은 미래는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고달팠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그들을 조롱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한가운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지 냉정하고 매서운 훈계나 당장 급한 현실을 모면할 실용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분은 세상 아래에 속한 교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들지라도,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 하시며 복을 선포하신다.

이 내용이 내 마음에 깊고 뜨거운 영적 울림을 주었다. 순식간에 마주한 일정과 공동체를 대하는 시선에 변화를 주었다. 세상처럼 복잡하고 분주한 머릿속을 차분하게 만들어줬다. 복잡하게 어질러진 방에서 분명히 필요한 물품이 있음에도 못 찾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시선을 향하게 되었다.

저자는 미리 알았다는 듯이 “선포된 복을 받음에 기뻐했으면 이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글을 이어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독한 방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주한 어두운 세상과 철벽같은 문제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께 우리가 동참했으니 주께서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미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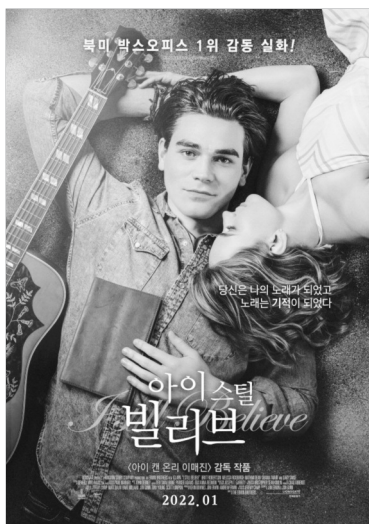
5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도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험을 중요시한다. 경험이 수많은 길을 인도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사회에서 학력, 경력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마주한다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에는 없다. 경험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진리만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께서 이 책을 읽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세우신 소금과 빛으로 자신을 녹임으로 세상에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환하게 비추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기를 축복한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불만한 영화

기적을 노래하다!

〈아이 스틸 빌리브(I Still Believe)〉
앤드류 어윈, 존 어윈 감독 / 드라마
/ 2022년 1월 개봉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기적을 노래하는 제레미 캠프의 절절한 사랑이 그대로 담긴 영화 〈아이 스틸 빌리브〉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당시 순식간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이다.

CCM 가수를 꿈꾸는 대학생 ‘제레미’는 공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멜리사’에게 첫눈에 반한다. 운명같이 다가온 사랑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였다. 멜리사가 난소암에 걸렸다. 둘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지만 제레미는 하나님이 맺어준 운명이라 생각하고 멜리사와 함께 고난을 헤쳐가기로 한다. 둘 사이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제레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적을 바라며 노래를 만들었다. 그 노래 제목이 ‘아이 스틸 빌리브(I Still Believe)’다. 이 노래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동명의 영화 〈아이 스틸 빌리브〉에 담았다.

영화 〈아이 스틸 빌리브〉는 세계적인 CCM 가수 제레미 캠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제레미 캠프의 대표곡이자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 ‘아이 스틸 빌리브’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노래 ‘아이 스틸 빌리브’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수없이 많이 1위를 했고, 미국 CCM계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 ‘도브 어워즈’에서 5회 수상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눅스는 게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방지일 목사

방지일牧사는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요, 한국 교회가 꼭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평양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방지일牧사는 평양숭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장대현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다. 방지일牧사의 신앙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고향에서 쫓겨나면서도 믿음을 지킨 조부 방만준에게서 비롯되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집중한 선교지는 중국 산동성이었다. 한국 교회는 1913년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를 산동성에 파송했다. 방지일牧사도 목사 안수를 받은 1937년 부친 방효원 목사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중국 산동성으로 향했다. 방지일牧사가 활동하던 당시 중국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국민당 집권기, 일본 점령기, 미군 치하, 국민당 집권기, 공산 정권 수립 등 시대의 풍파를 술하게 겪었다. 방지일牧사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만드는 등 사역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1948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5천여 명의 선교사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귀국하라는 요청을 받은 방지일牧사는 “공산당에 핍박당하는 중국인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중국에 홀로 남았다.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중국 교인들은 방지일牧사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중국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957년 중국 공산당이 방지일牧사를 북한으로 추방하려 했는데 서구 언론에 중국에 남은 최후의 개신교 선교사로 보도되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방지일牧사가 홍콩을 거쳐 한국에 왔을 때 그의 성경책 사이에 중국 교인들이 몰래 넣어둔 인민 화폐 20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온 방지일牧사는 영등포교회를 창립하고 “눅스는 게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좌우명처럼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2015년 103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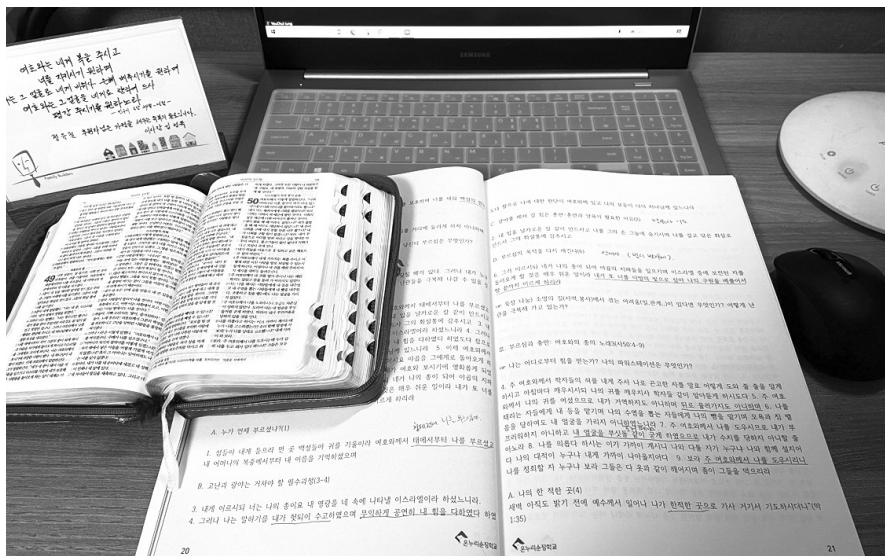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순장님에게 순장학교 참가를 제안받고 무척 당황했다.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예배에 참석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순장학교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순장님이 진지하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 등록 날짜까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순장학교를 마치면 바로 순장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거만한 생각마저 하고 있었다. 교만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내가 정말 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순장학교 신청서를 작성했다.

순장학교에서 순장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 리더십, 순장의 영성 등을 배웠다. 또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순장님들에게 생생한 순 섬김 노하우를 들었다. 특히 영적으로나 인성으로나 선배 되시는 순장님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필요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 강의와 나눔 중에서 “순은 작은 모임이지만 생명력을 가진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또 “순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에 대해 알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순 식구들의 기도제목이 떠오르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유철 순장(부천온누리교회)은 순장학교를 통해 순예배의 의미와 순장의 리더십, 영성을 배웠다.

”는 말도 인상 깊었다. 순은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다.

생각해 보면 순예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인 거 같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아내는 순예배에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그 덕분에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순예배는 어색하고 쑥스러워 참석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 아내는 또다시 남편

이 순예배에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순 식구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순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있다. 순장학교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생명력 있는 순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순 식구들에게 감사하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큰딸이 초등학교생일 때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 친구 아빠들은 다 순장님인데 아빠는 왜 아니야?”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순장학교로 부르시고 계셨던 것 같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순장님께 정말 감사하다.

순장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순장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원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순장님께 감사하다. 순장님이 매일 카카오톡 채팅방에 성경 말씀과 공지 사항을 전달해주시는데 그 메시지에 꼭 답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순장이 되면 교재 첫머리에 있는 말씀처럼 ‘순원들을 치유하는 목자, 순원들을 섬기는 청지기, 순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언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매주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들에게 감사하다. 여러 모양으로 섬김을 다 해주신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같이 교육을 들었던 예비 순장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 정유철 순장(부천온누리교회)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BC 요한복음 수료 간증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처음 배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당신의 외동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죽으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뇌리에 새겨졌다.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감사하게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백 누리고 있다.

OBC 요한복음 과정에서 공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였다.

“희수야. 잘살고 있니? 너 어디 있니?”

코로나19로 예배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같이 흐트러졌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



하희수 성도(서초B공동체)가 OBC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있다.

씀하셨다.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라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눈은 세상을 향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다 알아듣고 이해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해서 OBC 요한복음 과정을 신청했지만 내 마음이 자주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내려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이미 이 길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왜 자주 딴 곳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마음을 뺏긴 곳에는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하셨다. 마음으로 자유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눈치 보지 않고 나눔을 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조별 나눔을 하면서 스스럼없이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눈물 흘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삼장 십육절~♪”

어린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다. 이 찬양은 내가 처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다. 앞으로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떠올리며 부를 찬양이다.

목사님의 열정적이고 핵심을 파고드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OBC 요한복음 과정에 참가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끝없는 인도하심과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 수고하신 목사님, 총무님, 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하희수 성도(서초B공동체)

CGNTV, 장신대와 미디어 선교 위한 업무협약

현장실습생 파견, 미디어트랙 교육 등 협력하기로

CGNTV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7일(화)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마포삼열기념관에서 미디어 선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운용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CGNTV와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Co-op) 공동 운영안을 만들고,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을 2022년 동계 및 하계 방학에 CGNTV 제작 현장에 파견해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장로회신학대학교 미디어트랙 수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CGNTV가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CGNTV(이용경 대표이사, 좌)가 장신대(김운용 총장, 우)와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운용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은 “미디어 선교 전문가들이 모인 CGNTV의 역량과 경험을 장로회신

학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 ‘사랑의 상자’ 포장

서빙고온누리교회 주변 독거어르신 50가구에 전달

서빙고 이웃사랑팀(사회선교부)이 12월 19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상자’를 포장한다. 사랑의 상자에는 삼계탕, 김치, 레토르트 국, 캔, 가래떡과 S브릿지 공동체와 브릿지33+공동체 이웃사랑팀이 준비한 양말, 목도리, 치약이 들어갈 예정이다. 따뜻한 성탄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S브릿지공동체 자체 재능기부도) 함께 담는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포장한 사랑의 상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주변(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과동 일대)에 거주하는 50여 가구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2월 20일(월) 서빙고동주민센터, 보광동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사랑의 상자를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대문중랑공동체, ‘아프간 특별기여자’ 위한 현금

500만 원 봉헌 ... NGO 더멋진세상 사역 준비 중

동대문중랑공동체(담당 신원석 목사)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사용에 달라며 500만 원을 NGO 더멋진세상에 현금했다. 동대문중랑공동체 성도들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비용을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현금했다.

최호림 장로(동대문중랑공동체)는 “NGO 더멋진세상이 전라남도 여수에 머무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섬기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뜻을 모아 전달했다”면서 “이 현금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온누리교회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의료 지원 등의 섬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사마리안포스 코리야’와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 79명의 취업, 거주, 의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2년 1월 8일(토)부터 2월 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월 29일은 명절 연휴 관계로 휴강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조별 모임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은행, 회계 업무 경력자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로서 신실하고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능통한 금융기관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남양주 북향민 전도축제 ‘집으로’

25명 결신, 3명 행복한 하나예배 출석

남양주온누리교회 ‘행복한 하나예배’에서 지난 12월 11일(토) 남양주 북향민 전도축제 ‘집으로’를 개최했다. 북향민 25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결신자 3명이 12월 12일 행복한 하나예배에 출석했다.

행복한 하나예배 소속 성도들의 지인과 안개순원 35명을 초청해서 드린 북향민 전도축제 ‘집으로’는

탈북민들의 롤모델로 알려진 이순실 집사와 황유성 집사의 간증, 류지원 집사의 아코디언 특선, 이해영 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임현태 장로는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W청년부, 허브대학부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대학청년부 W청년부와 허브대학부가 12월 25일(토)과 26일(주일)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허브대학부 전도집회 ‘메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토) 오후 6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12월 26일(일) 오후 2시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이서진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 드라마팀 특선 등을 선보인다. W청년부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선물’은 1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에서 진행된다. 김윤식 목사가 설교, 간증, 서약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2년 1월 2일(주일)부터 2월 20일(주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온라인(유튜브, 줌)으로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강의를 듣고 그 주 토요일 줌(Zoom)으로 조별모임을 한다.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2월 2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하나님의 가정을 배우고 꿈꾼다!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1기’ 종료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연애·결혼 코칭세미나 ‘청춘클래스 1기’ (이하 청춘클래스)가 12월 18일(토) 막을 내렸다. 청춘클래스는 지난 11월 6일(토)부터 두 차례 오프라인 특강과 다섯 번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조별 만남이 이어졌다. 책 읽는 사자(사자그라운드 대표), 김미경 학장(MK유튜브대학 학장, 전문 소통 강사),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가 강의했다.

이정아 자매(길공동체)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며 용기 내서 청춘클래스를 참가했다”면서 “청춘클래스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꿈꾸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시은 형제(SNS청년부)는 “결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는데 청춘클래스에 참가하면서 연애와 결혼에 관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양재 세례명단

성인 김흥범 950106 문선영 830427 송유진 710823 이가현 850722 이경나 861115 임효빈 901019 전철호 730611 정재훈 850412 조성희 720814 조영석 700309 최소현 001107 황윤현 710808	유아 강하엘 210209 강호균 송시은 김세아 201028 김동호 김예원 김수호 190909 김태세 이한제 김시은 210228 김동준 박선영 김시은 180825 김민호 정은희 김이든 191226 김태환 신고운 김지은 201014 김기영 박주은 노태이빛 201208 노현철 손수연	박찬별 190702 박관수 양미화 손진하 200906 손호영 신아영 신수아 200927 신능호 박하인 심은호 190224 심영민 이경나 엄조이 200615 엄기호 강나영 오서연 181209 오윤석 정보미 이지아 201111 이진혁 추대희 이진 190430 이태웅 장미리내 이재은 200902 이상혁 배윤희	정이경 201119 정광진 이종안 정현제 210812 정호준 주은정 조 단 200131 조윤재 조진선 조이랑 190911 조신걸 문지혜 조이안 191128 조영석 이슬기 한선율 200108 한선희 이미소 한영우 200123 한세일 유은선 한재민 191112 한만서 김지연 홍주향 210102 홍요섭 여은주
---	--	---	---

■ 아름다운 피켓 스태프 간증



/ 전하은 자매(아름다운 피켓 스태프)

아름다운 피켓 함께 들어요!

올해 3월 다시 공부하고자 서울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다. 정신없이 첫 학기가 개강하고 급세 고난주간이 다가왔다. 고난주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새벽을 드리고 싶었다. 온누리교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상으로 온누리교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살리신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생명(태아)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김현철 목사님(사단법인 프로라이프 고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도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면 많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이 진행될 텐데 단 한 명의 임신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제목이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고난주간 새벽에 프로라이프(Pro-life; 낙태 합법화 반대, 태아생명 존중) 하나님을 만났다. 그 날 이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피켓’을 알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

리는 피켓을 들고 생명 운동을 하는 단체다. 때마침 아름다운 피켓에서 어린이날 ‘태아도 어린이예요’ 캠페인에 함께 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신촌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싶었다. 나는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님께 신촌 캠페인을 요청했고,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도 캠페인 봉사자 모집 광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처음 신촌 캠페인을 생각했을 때 누구든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다. 나도 그랬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마음을 나 같은 죄인이 알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아름다운 피켓에서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다.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뉴스레터, 영상편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늘 독특한 방식으로 연약한 죄인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장 작은 생명인 태아를 위해 아름다운 피켓을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신청: www.beautifulpicket.com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고은주 성도(광명공동체)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싶다!

중보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A국에서 추방되었다. 선교사님들의 비자가 막힌 상황에서 새 사역지가 열렸다. 그중 한 분이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 함께 기도하고 알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을 공동체에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칫하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소속 단체에 큰 누를 끼칠 뻔했다. 의도는 참 좋았지만,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고 열심만 있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를 할 때 나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탈레반 정권 이후 극심한 가난으로 어린 딸들, 심지어는 갓난아기조차 나이가 무척 많은 남자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온 가족이 연명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했다. 와이무슬림에서 매주 공유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조나눔을 하면서 복음을 아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 넓어지는 경험

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사랑의 임마누엘이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분이다. 이슬람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종교를 국가와 각 가정에서 철저히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 또 남녀차별이 심해서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는 이슬람 국가가 많다는 것과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생각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전도와 제자양육을 할 수 있다. 선교도 스마트선교로 바뀌어 가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 차세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도와 온라인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공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친구로 여기는 시각의 변화가 생긴 것도 감사하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싶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김형기 성도(강촌공동체)

그날 그 말씀이 나를

순장학교를 신청하면서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마음이 컸다. 순장으로 섬기고 있던 터라 순서가 뒤바뀐 감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겼다. 돌아보면 강촌공동체 평강5순을 맡게 된 사유도 참 신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원래 남편과 부부순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여성순 순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날 아침 QT를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마 21:22)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후에 순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놀랐다. 내 생각과 상황을 앞세워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의 울림이며, 위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의 그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했고, 순종이 그날 나의 적용이었다.

순장을 맡고 1년 정도 지나 순장학교에 뒤늦게 참여했다. 순장학교 교육내용을 내심 기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 교회에서 구역 인도자를 했던 터라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겠거니 했다. 오로지 나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주님과 첫 만남의 기쁨을 회

복할까’였다. 주님과 첫사랑 회복이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졌다. 주님이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키려 여성순 순장을 맡기셨다고 생각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과 순원들을 돌보게 명하시는 거라 여겼다.

주님의 계획과 방법은 신선했다. 그동안 순에 대해 갖고 있던 나의 사고방식을 점차 변화시키셨다. 장로님과 순장님들과의 교제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돌봐주셨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점차 변화되는 순장님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지 못한 게 여전히 아쉽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장의 역할과 순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하게 하셨다. 교회의 사역과 기관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하셨다. 순장학교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과 섬김의 기쁨으로 순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현우, 우주희 선교사(케냐)

“돌아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올해는 환란과 아픔, 고난과 슬픔, 감사와 기쁨의 경험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기쁨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이라 여겼던 그 시간도 돌아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예정에 없던 한국행 일정을 마치고 10월 중순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방문 이후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선물을 기대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옷에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과 다양한 가방 및 신발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당 3~4벌씩 옷을 지급하고도 아직 여분이 많아서 2차 3차로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11월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 밀가루를 배급하고 음식을 나누며 한국에서 보내온 의류와 문구류를 지급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지급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날은 받는 이

나 주는 이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써 주신 한국의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룹홈 아동이 더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담당해 줄 헌신된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지내고 있는 세 명의 청소년(켈빈, 맥스웰, 사무엘)들의 인격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닭장 건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CGNTV의 도움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많이 답습니다. 10월 말부터 2월까지가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11월 말 방학해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응하느라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한국과 한국 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장로칼럼

“모두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김광동 장로
(NGO 더멋진세상)

11년 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치료차 동경에 계실 때 나를 부르셨다. 하용조 목사님은 “25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구촌 이웃을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인종, 종교 지역을 넘어서 섬겨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NGO 더멋진세상 설립을 권면하셨다. 정말 땀방에서 시작했는데 돌아켜 보면 많은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게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도 열악한 마을을 사람답게 사는 마을로 만드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초등학교만 돼도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ECD센터(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영유아발달센터)를 세워서 지역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ECD센터에서 졸업생을 배출했고, 인근 지역에도 ECD센터를 개설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제는 사그라지기를 바랐던 코로나19가 지구촌 이웃들에게 계속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 먹고살기도 힘든 나라에서는 진단키트나 방역용품이 늘 부족하고, 강제된 봉쇄령과 이동제한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NGO 더멋진세상 스태프들은 20kg에 달하는 구호품키트를 만들어서 이웃들을 찾아갔다.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펼친 이후 많은 열매가 있었다. 그중에서 하나가 기독교에 배타적이었던 불교, 이슬람권 마을에서 기독교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내년에도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제3세계는 여전히 수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더멋진마을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전기가 없는 오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력으로 땅을 파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은 생명수와 다름없으므로 우물을 파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우물을 파고, 학교와 보건소 등을 세우고 나면 그다음 과제가 있다.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은 주민들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농업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제 먹고사는 수준의 농업을 달성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는 딸기, 오이, 파프리카, 피망 등의 특수작물이 자라고 있다. 각 지역 환경에 맞는 특산물 농업을 주변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몰도바, 르완다에는 봉제공장을 만들었다. 봉제공장에서는 농사가 어려운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지역적인 사업도 좋지만,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유럽 등지의 의료 업체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희생, 헌신, 기도로 NGO 더멋진세상이 많은 나라에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고 싶다. 그래야 아직 찾아가지 못한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선교현장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권사칼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숙한 사랑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여자와 남자는 너무 다르다. 대화할 때도 큰 차이가 있다. 남자는 수다라 생각하는 것을 여자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성취지향적인 남자들은 점심식사 약속을 할 때도 목표를 생각하며 잡는다. 그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사업상의 일들을 의논한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 부부생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강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한다. 점심식사를 마칠 때는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오늘 점심식사 참 잘했다”고 말한다. 남자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성취를 이루어간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대개 “애, 너 본 지 오래됐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라고 만나서 특별한 주제 없이 대화를 시작한다. 남편과 자녀, 친구 등 많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루면서 대화 그 자체를 즐긴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친 여자들은 “오늘 점심식사 참 잘했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간다. 그런 여자들을 보면서 남자들은 ‘쓸데없이 시간을 죽이며 수다를 떠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수다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여자에게는 수다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물론 여자들도 정보를 전하고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하고자 하는 말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지만, 여자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여자들은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도 이야기를 한다. 속상한 일이 있거나 울적할 때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다를 떠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 투덜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남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자는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의 많은 부분을 관계 맺기에 투자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수단이 대화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성취와 관련하여 좌절했을 때’ 혹은 능력에 대한 심한 모멸을 당했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성취지향적인 남자들은 성취와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지향적인 여자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 성취지향적인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여자다. 관계지향적인 여자들은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남자는 자기를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자상한 남자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는 성숙한 크리스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한다.

신앙에세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최영민 목사
(강촌공동체)

선교지 A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A국은 국가에서 허가된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 철거를 요청받고 있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다. 8개월 이상 건물을 찾던 중에 너무 좋은 건물을 발견했다. 임대가격이 높았지만, 우리가 소망하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었다. 문제는 건물주가 워낙 까다로워서 계약이 정말 어려웠다. 건물주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계속 추가시켰다. A국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도들은 건물주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기

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고 했다. 그런데 계약을 담당하던 집사님 두 분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해외출장을 가야 했다. 계약을 빨리 하려면 그 집사님들 없이 내가 계약을 해야 했다. A국의 상황, 불리한 임대계약 등 당시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평강이 없었다. 일주일 후에 계약을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오시면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임대계약에 대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 계약을 기뻐하시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멈추게 하소서.”

계약일 하루 전에 건물주에게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유를 물렀다. 정말 허무하고 황당했다. 그럼에도 기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임대 계약을 막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었다.

며칠 뒤 어떤 한인교회에서 자신들의 건물을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교회는 공장 건물 안에 있었다. 한인교회로 사용된 건물이라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임대료도 현재 1/4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9년 11월 초 우리 교회는 강제 폐쇄를 당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폐쇄를 당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안받은 한인교회 건물을 임대계약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선택의 여지 없이 계약했던 교회 건물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 그 교회는 공장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 보안도 좋고 주차장도 넓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정말 저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그 건물에서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녹화하면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하지 않고 이전 건물에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싼 임대료는 계속 지불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8개월 동안 교회 장소를 알아봤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교회가 폐쇄될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요셉, 롯,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한다(롬 8:28).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반복되어야 형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인데 왜 단수로 썼을까요?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의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나머지 열매들을 사랑의 열매로 풀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기쁨, 희락의 열매는 행복한 사랑입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의 행복입니다. 화평은 하나가 된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과 방법을 찾는 친절입니다. 양선이란 이기심이 없는 착한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입니다. 충성이란 책임감 있는 사랑입니다. 온유란 겸손한 사랑입니다. 절제란 훈련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시작해서 그 절정이 절제로 끝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한 사랑은 절제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이기에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절제가 없다면 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탄이 될 수 있

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절제까지 포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대상, 상황이 열매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는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평생 단 한 번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은사는 전적인 성령의 주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는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주고 모욕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의 열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용서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진심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화평의 열매는 핍박과 시험에 직면해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야고보에게서 나타납니다. 인내의 열매는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핍박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순교의 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시험과 순교를 이겨낸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소동하고 거센 반항으로 힘들게 했던 그들 가운데 유순한 유모처럼 나타났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바나바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 하더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랑의 열매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돕

는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서머나교회가 맺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킴으로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스테반 집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누가는 스테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모여든 군중 앞에서 언론을 의식해서 얼굴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데 천사같은 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 앞에서 온유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돌이 날아와도 온유함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절제입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한 번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천, 순종,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사랑이 희락의 열매를, 희락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분명 또다시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으니,

끊임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태환 장로
(사회선교부
회복적 정의팀)

‘회복적 정의’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쉽게 말해 ‘나그네 돌봄사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 같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 25:35),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강도당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회복적 정의사역의 1차 목표는 종교적, 인종적, 이념적 차이를 넘어 절박한 처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그네 돌봄(회복적 정의)사역은 오랜 준비를 거쳐 2018년 시작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이웃리

치를 했다. 섬김 대상을 찾아내고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불법체류로 억압받고 있거나 북송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서 공개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번의 아웃리치였지만 재중 탈북 가정들이 위로받았다. 그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매월 방문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다.

코로나19로 중국 아웃리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정체되었던 나그네 돌봄사역에 반전의 계기가 있었다. 재중 탈북민 대상에서 재중 북한주민과 국내 거주 난민, 난민 지위 신청자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첫째, NGO 피난처(난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이다. 피난처에서 보내준 난민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둘째, 온누리M미션을 통해 지원하게 된 아랍권 난민 신청자 A 가정과 B 가정 섬김이다. A 가정은 아랍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3명의 가족이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는데 아직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다. 치과 치료와 생필품 지원 등 후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에 우리 팀과 연결됐다. 부

부가 치아 8개를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팀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사회선교본부의 지원을 받아 치료했다. 이 가정이 온누리M미션(서빙고온누리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적이 있다. 교회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B 가정은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가정이다. 난민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두 번이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계 위협을 받고 있었다. 대면은 하지 못하고 생필품을 문 앞에 전달했다. 이 가정도 온누리M미션 전도사님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오고 있다.

셋째, 재중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능해진 사역이다. 코로나19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봉쇄되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북한 주민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약품 전달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

가 되리라 믿는다.

나그네 돌봄사역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섬김을 통한 사랑의 열매 맺기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고, 법과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나그네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섬김 대상과 후원자를 연결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후원할 수 있는 기관, 개인과 대상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협업도 필수적이다. 대상을 찾아 선정하는 과정부터 NGO 피난처, 온누리M미션, 재중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협업해야 한다. 섬김 대상도 이주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국내 거주 이주민 인구가 2019년 250만 명에 이르렀고, 국내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통한 선교사 역과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돌봄과 섬김이 필요하다. 나그네 돌봄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세다.

* MERRY CHRISTMAS *

크리스마스
특집 콘텐츠CGNTV와 함께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세요!

목자와 아기 예수

❄️ 드라마로 만나는 목자이야기
12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사론컴밥

❄️ 음악으로 하나되는 힐링 영화
12월 24일(금) 밤 9시

크리스마스 그레이스

❄️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영화
12월 20일(월) '풍당' 앱 공개맥스 루케이도의
절름발이 양❄️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 낭독
12월 24일(금) 낮 12시 10분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월 24일(금) 오전 11시
출연 :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김영우의 스윗사운즈
: Hymnstory❄️ 12월 23일(목) 오전 11시
출연 : CCM 가수 송정미

CGNTV 시청 안내

I P T V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케 이 블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CGNTV
웹사이트CGNTV
유튜브채널'풍당' 앱
다운로드2022년 CGNTV 말씀달력이 출시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2022년을 준비하세요.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